

‘광주 발전’엔 공감... 일부 현안 ‘신경전’

삼성전자 車 전장사업 광주 유치 TF팀 가동

시 “車 100만대 시너지...범시민 유치기구도 추진”

광주시가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電裝)사업의 광주 유치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위한 기획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 사업의 광주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시는 조만간 2차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기아자동차라는 완성차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가 있어 자동차 전장사업의 최적지”라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전장사업이 광주에 유치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전장인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전자·IT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텔레매틱스, CID(중앙정보디스플레이), HUD(헤드업디스플레이), 차량용 반도체 등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긴장감 흐른 광주시-총선 당선자 간담회

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문화 밸리 구축 한목소리 ‘광주 발전 합의문’ 무산... ‘희망 실천방안’으로 대체 2년 뒤 차기 시장 선거 겨냥 ‘기선잡기성’ 발언도

10일 열린 광주시와 광주시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는 화기애애하다 못해 형식적 행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안철수 사람’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전원 국민의당 소속인 당선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도 형성됐다.

그러나 광주발전을 위해서 ‘이기투합’을 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은 시장 현안에 자칫한 듯 반기를 들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을 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를 받는 것 같다”는 뼈있는 말까지 나왔고, 애초 발표될 예정이던 공동 합의문은 형식상 문제로 일단 일어 났다.

대신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결과를 ‘광주 희망 실천방안’ 발표문으로 대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박주선·장병완·송기석·김경진·최경환 등 6명의 당선인이 참석했으며, 광주시의 국비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지원에 대해 대다수 당선인들은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시가 이렇게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당면 현안이 많고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저희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저희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의식하며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회에서 광주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정에 각을 세우는 발언도 나왔

다. 장병완 당선인은 “삼성 전장사업은 컨셉이 맞지 않고, 실체도 없는 사업이다. 계획 자체가 없는데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나 정치권 모두에 부담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실체도 없고 달성 못 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만 받게 될 일을 (지원)과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당선인은 또 “남구 도시첨단산단을 왜 지방산단으로 고집하느냐, 국가 산단으

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 관사는 도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관사를 없앴다’는 자랑을 그만 줘 줘 좋겠다”고 다소 감정 섞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시장선거를 염두에 둔 기선잡기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동철 의원은 “간담회를 시간에 쫓기듯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결할기식이 아닌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하면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심부름꾼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윤 시장과 광주시역 당선인들은 이날 간담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

고 ‘더불어 사는 광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3대 밸리산업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해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면서 “정치권과 사회의 및 자치구와도 긴밀히 소통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당당하고 넉넉한 광주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윤 시장은 간담회가 열리기 앞서 당선인 대표인 김동철 의원에게 ‘광주’를 위해 열심히 뛰여 달라’는 의미를 담아 운동화를 선물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작곡가와 함께 부르는 ‘임 행진곡’ 제10회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이 10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렸다. 수상자인 김종률(왼쪽) 작곡가가 오월어머니집 회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식 막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 시(市) 시장 측은 10일(현지시간) 의원내각제와 연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ABS-CBN 방송에 따르면 두테르테 시장 측 피터 라비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통령제의 실패를 목도해 왔다”면서 “대대적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6개월 이내에 제헌회의의 구성원 선출을 국회에

요청하고, 2019년 중간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6년 대통령 단임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막말을 서슴지 않아 ‘필리핀판 트럼프’로 불리는 그는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역임할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장발자’란 별명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5·16 동참 거부...강영훈 전 총리 별세

제21대 국무총리를 지내며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강영훈 전 총리가 10일 오후 3시 7분께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22년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태어난 강 전 총리는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총재, 군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영국 대사 등 외교관으로도 활약했다.

고인은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등으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으며, 5·16 군사정변을 맞아 동참을 거부했다가 ‘반혁명 장성 1

호’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됐다.

1988년에는 제13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해 금배지를 달았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부인 김효수 씨와의 사이에 남매 변호사인 장남 성용씨, 장녀 효영씨, 차녀 혜연씨 등 1남 2녀를 뒀다.

연합뉴스

전남 저수지 276곳 보수 시급 ‘D등급’

3207곳 중 90% ‘보통 이상’

전남지역 저수지 10곳 중 1곳이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10일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국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남 지역 3207개소 가운데 9%인 276개소가 D등급으로 판정돼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D등급은 저수지 주요 시설물 결함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52곳(1.7%)은 기능 상실과 개발사업 등으로 용도폐지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등급 우수(A) 및 양호(B)는 각각 234곳(7.3%), 1014곳(31.7%)이었으며, 보통(C)이 절반을 넘는 1631(50.9%)로 집계됐다.

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2016년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은 예측되지 않는 재

난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이뤄졌다. 3207개 저수지 가운데 2215곳은 시·군이, 992곳은 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 전반적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방 침투·침몰 방지와 제방 하류부 누수, 물넘이 및 취수시설 노후로 인한 결함 등을 발견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또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다.

D등급 276개소 가운데 181개소는 이미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연내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수·보강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9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글루코스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뇨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 (롯데백화점)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5. 11(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1교시 하반기 경기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 공개
- 2교시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및 정확한 수익 분석
- 이전 농지가 돈이 된다!!! / 돈이 되는 농지 구별법
- 3교시 재테크의 달인 김영표 대표의 성공 투자 해법 공개
- 투자 실패 사례 분석 및 성공 사례 완벽 분석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 / 물건별 상담분석 및 일반인 투자 노하우
- 4교시 물으면 개찰기 토지 투자로 영원히 월세 받는 비법 공개
- 미래 가치 확실한 개찰기 토지 투자로 파파리는 노려우 원천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방송 및 대학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